

등록번호	안전해소위 - 3192
등록일자	2016.11.18
결재일자	2016.11.18
공개구분	공 개

담당자	전문위원	수 석 전문위원	사무처장
최호준	이영우	김보영	김영민
협 조	총무담당관 문경주		

부위원장	위원장	의 장	결 재
장광삼	박재호	김영민	

- 2016년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

- 기간 : '16.10.8(토) ~ 10.17(월), 8박 10일
- 국 가 :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충 청 남 도 의 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6. 11.

- 2016년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

- 기간 : '16.10.8(토) ~ 10. 17(월), 8박 10일
- 국가 :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충 청 남 도 의 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 목 차 】

I. 연수개요

- ① 목적 2
- ② 연수개요 2
- ③ 업무수행분담 3
- ④ 세부일정 4

II. 주요 연수내용

- ① 방문국 일반현황 6
- ② 주요연수내용 11
 - 가. 베르겐 SOTRA BRANNVERN IKS 소방서 방문 · 11
 - 나. 베르겐 FIRESAFE 방문 17
 - 다. 스웨덴 쇠데르텔리에 시청 방문 22
 - 라. 핀란드 PORT OF HELSINKI 항만시설 방문 ... 28

III. 연수 견학활동 내용

- ① 주요 내용
 - 가. 바이킹박물관 33
 - 나. 브리젠 역사지구 36
 - 다. 바사호박물관 40
 - 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지구 43
 - 마. 그 밖에 참고 정보 47

IV. 연수를 마치고 51

I 연 수 개 요

1 목 적

- 선진 외국의 재난시스템·건설·도시계획·도시환경정비·소방시설·소방안전시스템 및 문화유산 등 비교 시찰로 우리 道의 행정에 접목시키고,
- 지방의회 운영 제도와 사회·경제·문화·개발에 대한 특징을 비교 체험하여 글로벌화 지방행정에 대처하며 경쟁력 제고

2 개 요

- 기 간 : 2016. 10. 8. ~ 10. 17. (8박 10일)
- 대상지역 :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 대상인원 : 10명(의원 5, 전문위원실 3, 집행부 2)
 - 의원(5) : 맹정호 위원장, 정광섭 부위원장, 조치연 의원, 조이환 의원, 홍성현 의원
 - 전문위원실(3) : 김보영, 이면우, 최호준
 - 집 행 부(2) : 재난안전실(안상만), 건설교통국(김준운)
- 주요내용
 - 재난예방시스템 수립 현황 및 재난발생 대응체계 현황
 -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건설행정 우수사례 파악
 - 도시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공공디자인 도입 실태 파악
 - 항만개발 및 수변공간 재개발 사례 파악
 - 소방 조직과 운영 실태, 구조·구급 등 인명구조시스템 파악
 - 동절기 소방안전 출동체계 등 파악
 - 문화유산 보존 및 화재예방 관리 실태 파악

3 업무수행 분담

구 분		성 명	업 무 수 행 내 용
안전건설 해양소방 위 원 회	위원장	맹정호	■ 총괄
	1조	정광섭 (부위원장) 조치연	■ 도시계획 수립 및 건설행정 우수사례 발굴 - 도시개발 및 개발현황 자료수집 - 교통안전 및 건설행정 우수사례 파악 ■ 도시 재개발 현황 파악 - 도시 재개발·재건축 현황 자료 수집 ■ 항만 개발 및 수변공간 재개발 실태 - 항만 개발 및 운영현황 - 수변공간 재개발 사례 조사
	2조	조이환 홍성현	■ 재난발생시 대처 요령 -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공조체제 - 재난방생시 대응 체계 현황 ■ 소방조직 운영 실태 파악 - 소방 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소방장비 및 시설 관리실태 비교
의 회 사무처	수석 전문 위원	김보영	■ 의원 공무국외출장 지원 총괄
	직원	이면우 최호준	■ 의원 공무국외출장 지원 및 자료수집
집행부	직원 2명	안상만 김준운	■ 충청남도과 선진국의 시책 비교검토 - 재난안전 및 예방에 대한 자료수집 - 도시계획 및 건설교통에 대한 자료수집 - 항만개발 및 수변공간 재개발에 대한 자료수집 - 신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한 자료수집 - 소방 및 인명 구조시스템에 대한 자료 수집

4 세부일정

일 자	장 소	교통편	일 정
제1일 10월8일 (토)	인 천 암스텔담	KE128	• 인천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약 11시간) • 암스텔담 공항 도착
제2일 10월9일 (일)	암스텔담	전용버스	▶ 방문견학 [네덜란드 운하 및 수변공간 조성 탐방] [풍차마을 조성 현황] [운하크루즈 승선] [수변공간 조성 현황 시찰]
제3일 10월10일 (월)	암스텔담 오슬로 FALL	SK822 전용차량	▶ 방문견학 [도시계획 및 항만유적지 탐방] [카를요한스 거리 탐방] [오슬로 시청사 방문] [바이킹박물관 관람]
제4일 10월11일 (화)	FALL 구드방겐 플롬	전용버스 FERRY	▶ 방문견학 [터널 건설 및 유람선 운항 탐방] [세계에서 가장 긴 레르달 터널 시찰] [플롬 ~ 뤼르달 구간 열차 플롬 라인 탐방] [플롬 ~ 구드방겐 구간 선박 승선 송네 피오르드 탐방]
제5일 10월12일 (수)	플롬 베르겐 스톡홀름	전용버스 DY4140	▶ 기관방문 [베르겐 SOTRA BRANNMERN IKS소방서 방문] - 소방시설 및 재난 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 시찰 - 소방시설 및 재난 시스템에 대한 질의 응답 - 담당자 : NILS ANDERS MAELAN - 전화번호 : Tlf. dir. 901 90 709 ▶ 기관방문 [베르겐 FIRESAFE 방문] - 소방전문 종합적 컨설팅에 대한 질의 응답 - 소방시설 생산 및 시공에 대한 질의 응답 - 담당자 : MR. OYDTEIN ANFINNSEN - 전화번호 : 932 63 929/471 70 783

일 자	장 소	교통편	일 정
제6일 10월13일 (목)	스톡홀름	전용버스 SILJALINE	▶ 기관방문 [쇠데르텔리에 시청 방문] - 도시계획 구성 및 신도시개발에 대한 설명 청취 - 도시계획 시스템 및 신도시개발에 대한 질의 응답 - 담당자 : Andreas Klingstrom - 전화번호 : +46 8 523 071 31
제7일 10월14일 (금)	헬 싱 키 상트페테부 르크	전용버스 TRAIN	▶ 기관방문 [PORT OF HELSINKI 항만시설 방문] - 항만시설 운영 및 에 대한 비교연구 시찰 - 항만시설 운영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질의 응답 - 담당자 : JUKKA KALLIO - 전화번호 : +358(0) 40 3504025
제8일 10월15일 (토)	상트페테부 르크	전용버스	▶ 방문견학 [유네스코문화유산도시 건축물의 보존과 관리] [카잔성당], [러시아 시민공원(여름궁전)] [시청사], [성이삭 성당]
제9일 10월16일 (일)	상트페테부 르크 인천	전용버스 KE930	▶ 방문견학 [유네스코문화유산도시 건축물의 보존과 관리] [국립에르미타주박물관], [피의 성당] [넵스키 대로], [페블로파블롭스키요새]
제10일 10월17일 (월)	인천	KE930	• 인천 국제공항 도착

II 주요 연수내용

1 방문국 일반현황

가. 네덜란드(Netherlands)

국명	네덜란드 왕국 Kingdom Of The Netherlands)
위치	서유럽, 벨기에와 독일 사이 북해의 경계선 지점 동경 5° 45', 북위 52° 30'
면적	41,526km ² (131위)
기후	네덜란드는 위도가 높은 곳에 있지만, 북부 지역은 북해의 난류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로 1년 내내 온화한 편이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는 작지만, 날씨는 변하기 쉽다. 그러나 남동부 지역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기후가 거칠고 기온차도 심하다.
수도	암스테르담
인구	16,892,500명 (64위)
1인당 GDP	5만 2,248(\$)(2014년 기준, 12)
주요도시	네이메헌, 덴헬데르, 도르드레흐트, 마스트리흐트, 아선, 암스테르담, 이유무이텐, 틸뷔르흐, 하를럼, 헤이그, 호로닝언
민족(인종)	네덜란드인(80.7%), 유럽인(5%), 인도네시아인(2.4%), 터키인(2.2%), 수리남인(2%), 모로코인(2%), 기타(5.7%)
언어	네덜란드어, 프리지아어
종교	로마가톨릭교(30%), 개신교(20%), 이슬람교(5.8%), 기타(2.2%), 무교(42%)
건국일 (독립일)	1579년 1월 23일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하의 의원 내각제 공화국
국가원수 (실권자)	국왕:빌럼 알렉산더르(Willem-Alexander)왕(2013.4 즉위) 총리:마르크 뤼터(2010)

나. 노르웨이(NORWAY)

국명	노르웨이 왕국(Kingdom of Norway)
위치	북유럽, 북해와 북태평양 연안, 스웨덴의 서쪽 동경 10° 00', 북위 62° 00'
면적	324,220km ² (68 위)
기후	기후는 한대성 기후이다. 한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12월에는 오후 3시만 되어도 일몰하고 기온은 -15℃ 이하이다. 하지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겨울 기온이 떨어지고 강우량이 적다. 눈이 자주 오는 편이며, 북극처럼 백야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수도	오슬로(Oslo)
인구	5,165,802명 (117위)
1인당 GDP	9만 9,294(\$)(2014년기준, 2위)
주요도시	나르비크, 드람멘, 베르겐, 보되, 산네스, 스타방에르, 시옌, 오슬로, 크리스티안산, 트론헤임, 트롬쇠, 프레드릭스타
민족(인종)	노르웨이인(94.4%), 기타 유럽인(3.6%), 기타(2%)
언어	노르웨이어
종교	복음루터교(85.7%), 기타(14.3%)
건국일 (독립일)	1905년 10월 26일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실권자)	국왕:하랄드(Harald) V (91.1 즉위) 총리:에르나 솔베르그 (2013)

다. 스웨덴(Sweden)

국명	스웨덴왕국(Kingdom of Sweden)
위치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남부 동경 15° 00', 북위 62° 00'
면적	449,964km ² (55 위)
기후	스웨덴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연중 기온이 온화하다.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동일 위도상의 다른 지역보다 따뜻하여 남부와 중부 지방은 여름에 종종 25 ~ 30℃에 이른다. 북부 지방은 북극 기후의 영향으로 6개월간 영하의 온도가 계속된다.
수도	스톡홀름
인구	9,753,627명 (90위)
1인당 GDP	5만 7,556(\$)(2014년 기준, 9위)
주요도시	말뫼, 스톡홀름, 예테보리, 옅살라, 칼스타드, 크리스티안스타드, 키루나, 헬싱보리
민족(인종)	스웨덴인, 핀란드인, 소수민족
언어	스웨덴어
종교	복음루터교(87%), 기타(13%)
건국일 (독립일)	1523년 6월 6일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 (실권자)	국왕:칼 16세 구스타프 총리:프레드릭 라인펠트(2006)

라. 핀란드(Finland)

국명	핀란드 공화국(Republic of Finland)
위치	북유럽 발트해연안 동경 26° 00', 북위 64° 00'
면적	338,145km ² (65 위)
기후	위도 상 북위 60~70° 에 위치해 있지만 발트해와 맞닿아 있어 비교적 온난하다. 남부는 2월 평균기온 -7℃, 7월 평균기온 17℃. 북부는 2월 평균기온 -14℃, 7월 평균기온 13℃이다.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다. 북부에서는 여름에 70일 이상 백야가 지속되고, 겨울에는 반대로 5개월 동안 해를 볼 수 없기도 한다. 여름은 한국의 따뜻한 늦봄 날씨와 비슷하다.
수도	헬싱키(Helsinki)
인구	5,475,526명 (110위)
1인당 GDP	5만 450(\$)(2014년 기준, 16위)
주요도시	라티, 로바니에미, 마사, 오울루, 탐페레, 투르쿠, 헬싱키
민족(인종)	핀란드인(93.4%), 스웨덴인(5.6%), 러시아인(0.5%), 기타(0.5)
언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종교	핀란드루터교(82.5%), 그리스정교(1.1%), 기타 기독교(1.1%), 기타(0.1%), 무교(15.1%)
건국일 (독립일)	1917년 12월 6일
정부형태	공화제
국가원수 (실권자)	사울리 니니스퇴(Sauli Vainamo Niinisto)대통령(2012.3 재임, 임기 6년)

마. 러시아(Russia)

국명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위치	대서양 연안의 북부 아시아 동경 100° 00', 북위 60° 00'
면적	17,124,442 km ²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포함) (1 위)
기후	러시아의 기후는 매우 한랭하고 긴 겨울과, 짧고 서늘한 여름을 가지는 전형적인 대륙기후이다. 남쪽의 중앙아시아에 발달한 산악지대가 습윤한 아열대성 기단을, 또 동쪽의 험준한 습곡산지가 태평양의 해양성 기단을 차단하며 서쪽의 대서양 기단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이 겨울에는 급속히 추워지는 반면 여름에는 급속히 기온이 상승한다.
수도	모스크바
인구	146,611,980명 (9위)
1인당 GDP	1만 4,316(\$)(2014년 기준, 57위)
주요도시	나훗카, 노보시비르스크, 로스토프, 마가단, 모스크바, 보로네시, 볼고그라드, 블라디보스토크, 사라토프,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스트라한, 야쿠츠크, 예카테린부르크, 옴스크, 우파, 이르쿠츠크, 첼랴빈스크, 카잔, 크라스노다르, 크라스노야르스크, 페름,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프로비데니야, 하바롭스크
민족(인종)	러시아인(79.8%), 타타르인(3.8%), 우크라이나인(2%), 기타(14.4%)
언어	러시아어
종교	러시아정교(15-20%), 이슬람교(10-15%), 기타 기독교(2%)
건국일 (독립일)	1991년 08월 24일
정부형태	공화제
국가원수 (실권자)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 대통령(2012.5.7 취임, 임기 6년)

② 주요 연수 내용

가. 베르겐 SOTRA BRANNVERN IKS 소방서

○ 일	시 : 2016. 10. 8(토), 11:00
○ 장	소 : 노르웨이 베르겐 SOTRA BRANNVERN IKS 소방서
○ 내	용 : 소방시설 구성 및 운영체계 등

① 현 황

○ 소방서 체계현황

- 베르겐시에 중앙소방서 1개가 있고, 소트라구에 2개의 소방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소방서는 24시간 가동체계이며, 소트라구의 2개 소방서는 24시간이 아닌 경보 올림시 비상소집되는 시스템임.
- 베르겐시의 통합센터에서 경찰(112), 병원(113), 소방(110)의 신고전화에 대해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전화에 대한 각 분야별로 안내해주고 있음.

○ 주요기능

-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중앙통합센터 운영을 통해 베르겐 소방서, 베르겐 경찰서, 베르겐시청과 유기적인 연결체계를 구성하여 재난시스템 가동하고 있음.
- 우리 소방서 인력은 현재 32명이며, 만약 재난상황 발생 시 사고발생 지점과 가장 가까운 소방서에서 우선적으로 출동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② 질의·응답

○ 소방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우선적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으로 목표를 하고 있으며, 전 소방서 직원이 사고방지를 위해 화재, 생활 안전 및 재난을 대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음.

○ 응급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술은 누가 실시 하는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방서 전 대원이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의료 전문강사가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 교육 및 실습을 하고 있음.

○ 출동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 현재 우리 소방서는 1년에 150건~200건 정도 출동을 하고 있으며,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출동을 포함하면 200건 이상 출동하고 있음.

○ 베르겐은 항구도시인데 만약 선박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 선박 화재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배가 정박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저희 소방서뿐만 아니라 인근의 소방서도 같이 협력해서 진압을 하고 있으며, 만약 바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베르겐 중앙소방서의 전문가가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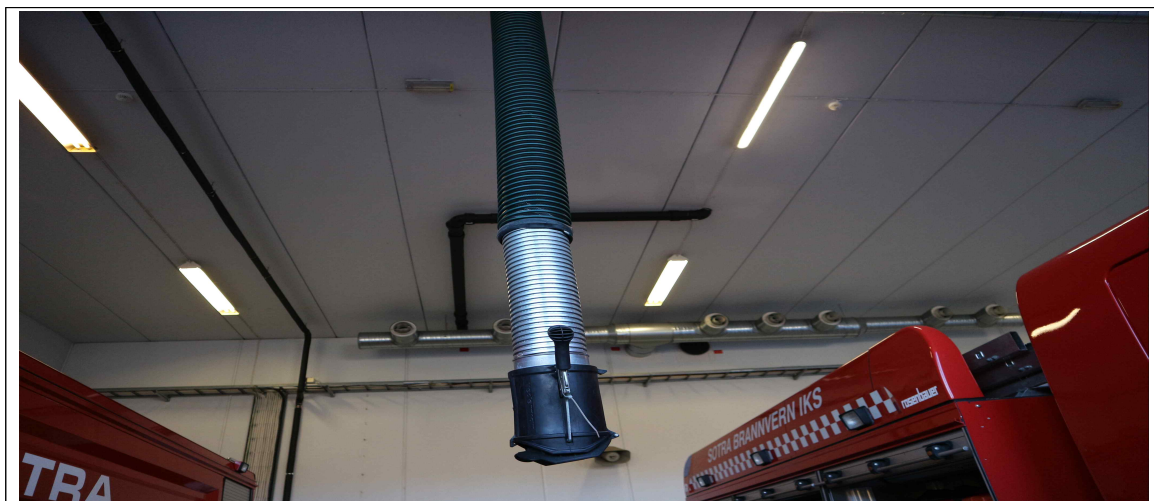
○ 화재는 진압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방서 자체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는지?

▶ 좋은 말씀이다. 화재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더욱 중요한 것 같다. 우리도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을 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서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재산, 사망 및 부상자를 줄이기 위해 훈련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년에 정기적으로 대상 시설을 방문해서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③ 시사점

○ 소방차고에 설치된 매연배출장치

▶ 소방차고에 매연배출장치를 설치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매연배출장치

베르겐 SOTRA BRANNVERN IKS 소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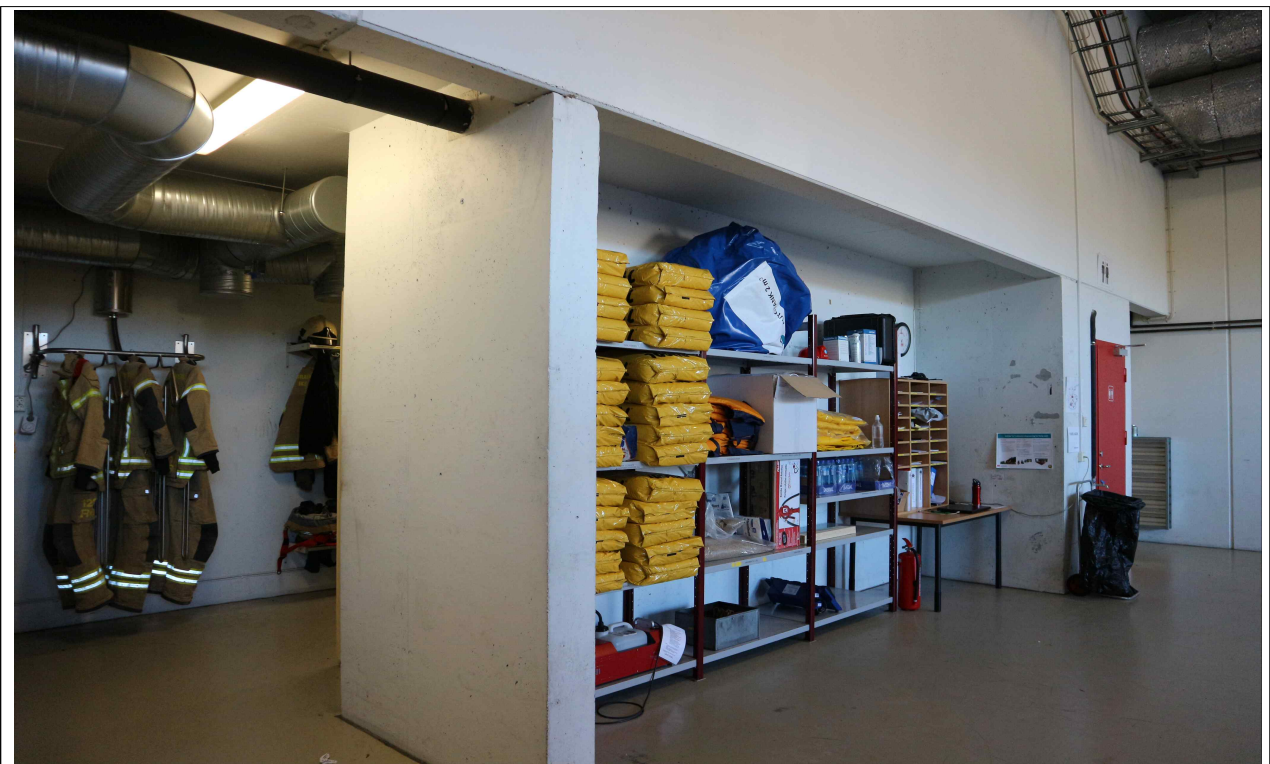
▶ 베르겐 SOTRA BRANNVERN IKS 소방서 방문 기념촬영



▶ 소방 출동 체계 및 재난대응체계 설명 및 질의응답



▶ 소방 출동 체계 및 재난대응체계 설명 및 질의응답



▶ 소방장비 확인



▶ 소방장비 확인



▶ 소방장비 확인

나. 베르겐 FIRESAFE 방문

- | | |
|-----|-----------------------------|
| ○ 일 | 시 : 2016. 10. 12(금), 13:00 |
| ○ 장 | 소 : 베르겐 FIRESAFE 방문 |
| ○ 내 | 용 : 베르겐 소방 컨설턴트 수립 및 적용실태 등 |

① 시설개요

○ 베르겐 FIRESAFE

- 1981년 설립
- 화재 및 안전에 대한 컨설팅, 실행, 관리 및 서비스 그리고 화재 특수 제품을 공급하는 소방 활동의 컨설팅 담당
-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 설립되어 있으며, 5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FIRESAFE 주요업무

- ❶ 설계 :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소방관련 설계를 직접함.
- ❷ 시공 : 설계된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을 담당.
- ❸ 서비스 : 화재관련 시공 및 제품 서비스
- ❹ 판매 : 소방관련 용품 제작 및 판매

○ 주요기능

-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화재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에 따라 건축물의 소방 관련된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턴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설계 및 시공하고 있음.

② 질의·응답

○ FIRESAFE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목표는 어느 나라든지 모두 동일할 것으로 생각된다.

▶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 건축물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턴트를 추진해서 건물이 완성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검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

▶ 건축물이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검사를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FIRESAFE)와 동일한 자격증을 가진 경쟁업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음.

▶ FIRESAFE가 생기기 전에는 소방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였으며, 또한 검사도 직접 하였으나, 현재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음.

○ 노르웨이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화재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현재 노르웨이 차량의 20%로 정도가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아직 전기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하여 우리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 화재가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자와 보험회사 그리고 우리 (FIRESAFE) 같이 현장에 투입되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함.

▶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고 난 위치에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불이 나기 전의 예전의 집과 똑같은 규격의 집을 지어야함.

○ 노르웨이는 많은 터널이 있는데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 1차적으로 터널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터널내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누군가가 들기만 하여도 해당 도로관리청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터널 안에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환풍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터널 내부의 연기를 처리할 수 있음.

○ 건물이 다 지어져서 준공검사를 할 때 해당 자격을 소지한 경쟁업체에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경쟁업체에서 준공검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장점은 존재한다. 설계 시공단계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어 추진되며, 서로에 대한 정확한 준공검사를 통해서 건물에 대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점이며, 단점은 잘못된 시공에 대한 추가 시공, 그러나 단점 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된다.

③ 시사점

○ 터널 내 소화기를 들었을 경우 알림메시지 전달

▶ 터널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누구라도 터널내부의 소화기를 들면, 해당 도로관리청으로 알림메시지가 자동으로 전달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터널내에서 일어나는 화재 상황을 조기에 파악이 가능한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판단됨.

베르겐 FIRESAFE 방문



▶ 베르겐 FIRESAFE 운영상황 청취 및 질의



▶ 베르겐 FIRESAFE 운영상황 및 질의



▶ 기념품 전달



▶ 직원들과 기념촬영

다. 스웨덴 쇠데르텔리에 시청

- | | |
|-----|---|
| ○ 일 | 시 : 2016. 10. 13(목), 10:30 |
| ○ 장 | 소 : 스웨덴 쇠데르텔리에 시청 |
| ○ 내 | 용 : 자치단체 운영사례 및 도시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

① 개 요

- 쇠데르텔리시는 스웨덴 스톡홀름주에 속한 도시이며, 스톡홀름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업도시로서 스웨덴에서 20번째로 큰 도시임.
- 스톡홀름주는 인구 200만명으로 스웨덴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쇠데르텔리시는 9만 3천명이 살고 있음.
- 쇠데르텔리시는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노동력 제공이 많은 곳이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회사와, 스카니아라는 트럭을 만드는 유명 회사가 있으며, 근로자 수가 22,000명이 일하고 있으며, 매일 2만명이 인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도시임.
- 특이하게도 쇠데르텔리시는 45개의 다문화 민족이 구성된 도시로서 인구대비 51%가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임.
- 쇠데르텔리시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 주거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어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 방문목적
 - 스웨덴 자치단체 운영 사례 공유
 - 도시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설명 및 질의

② 질의·응답

○ 도시계획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점은 거주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 환경과 유기적인 조화속에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쇠데르텔리에시도 2만명의 주택지 건설계획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주변 산업체와 어떻게 유기적이며,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조성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과 계속적으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음.

○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들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 검토되는 것이 있는지?

▶ 주거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전통적인 스웨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 환경에 맞추어서 조성하고자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 도시계획 수립할 때 국가정부와 협의를 하는지?

▶ 국가정부와 별도의 협의는 없다. 스웨덴은 지방자치가 많이 발달된 곳이며, 도시계획 및 건물 건립에 따른 결정은 시에서 한다.

○ 도시개발 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투자하는지?

▶ 공공사유지 토지는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건설 같은 것은 민간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조성하고 있음.

○ 주거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한국처럼 고층 아파트를 계획해서 주거지 부족을 해소할 수 없는지?

▶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건물을 높이 짓지를 않으며, 또한 고층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는 주차장 등 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왕립공과대학을 유치한다고 하였는데 계획은?

▶ 우리시는 스카니아,아스트라제네카 등의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고 힘이다. 분명 대학측에게 큰 매력으로 어필할 수가 있을 것이며, 현재도 대학 관계자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어,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③ 시사점

○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화까지 고려하여 검토

▶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인종, 문화생활까지 검토하여, 그들이 잘 정착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점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우리나라의 농촌지역도 다문화 가정이 급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고, 도시 지역도 외국인들의 비중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구상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음.

스웨덴 쇠데르텔리에 시청



▶ 스웨덴 쇠데르텔리에 자치단체 운영사례 청취 및 질의응답



▶ 쇠데르텔리에 도시계획 수립방향 청취 및 질의응답



▶ 기념품 전달



▶ 기념촬영



▶ 시청앞 태극기 앞에서



▶ 시청 의회 회의장

라. 핀란드 헬싱키 항만시설 방문

- | | |
|-----|-----------------------------------|
| ○ 일 | 시 : 2016. 10. 14(금), 10:30 |
| ○ 장 | 소 : PORT OF HELSINKI(헬싱키 항만시설) |
| ○ 내 | 용 : 항만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연구시찰 등 |

① 개 요

- 핀란드의 PORT OF HELSINKI는 헬싱키의 항만시설에 대해 전체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항만공사라고 명시할 수 있는 곳임.
- 헬싱키에는 3개의 항구가 있는데, 여객항 2개, 무역항이 1개 있는 곳으로 핀란드 무역의 3분의 1을 헬싱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해상무역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 헬싱키는 연간 물동량이 1,140만톤이며, 1,120만명에 이르며, 우리 PORT OF HELSINKI에 2만 4천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것은 핀란드 전체의 1%로, 헬싱키 전체의 3%로에 해당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 핀란드 전체로 볼 때 무역 물량이 헬싱키로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공산품, 음식 등을 수입하고, 종이, 보드 등을 수출하고 있다.
- 주요업무
 - 헬싱키의 항만 운영에 관한 사항
 - 헬싱키 무역항, 여객항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질의·응답

○ 항만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는지?

▶ 당초에는 항만에 대한 소유 및 운영을 정부에서 하였으나, 2년 반전에 유럽연합에서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왔고, 그 지침에 따라 항만에 대한 운영은 민영화를 하도록 하였음.

▶ 이에 헬싱키가 항만에 대한 100%로 소유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임.

○ 항만 시설 중에서 크레인 같은 장비는 항만기업 소속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인지?

▶ 10년전까지는 항만공사에서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별도의 사기업들이 소속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기업들에게 많이 분배가 될 예정임.

○ 해상에서 여객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여객선에 대한 화재 및 사고에 대비하여 구조계획 매뉴얼을 항상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수시로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1년에 1번은 가상훈련을 실시할 때 손님들에게 사전예고 없이 실시해 실전을 경험할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물론 끝나고 난뒤에는 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한다.

○ 해상에서 선박 사고 시 협조체계는?

- ▶ 발트해에서 해상 선박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인근 국가들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국가에서 헬기를 급파하고 구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들을 투입하여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

③ 시사점

○ 여객선 선박 사고를 대비한 가상 훈련

- ▶ 해양에서 여객선 선박 사고를 대비하여 가상으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지만, 1년에 1번정도는 탑승한 손님들에게 훈련 상황을 사전 예고를 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선박 사고에 대한 현실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점은 꼭 배워야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 ▶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훈련처럼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훈련과는 차별화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또한 그런 훈련 상황을 이해해줄 수 국민의 국민성 또한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훈련을 실시할 때 꼭 적용을 하기를 하는 바람이다.

핀란드 PORT OF HELSINKI 항만시설 방문



▶ PORT OF HELSINKI 운영 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



▶ PORT OF HELSINKI 운영 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



▶ 기념품 전달 및 기념사진



▶ 여객항에 정박해있는 유람선(실자-라인)

III 연수 견학활동 내용

1 주요내용

가. 바이킹박물관

<주요현황>

-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바이킹박물관에는 8세기부터 300년간 유럽에서 북미로 가는 북해의 해로를 따라 항해한 3척의 바이킹 무장선단의 선박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된 첫번째 배는 1867년 오슬로만 동쪽 해안 근처에서 발견된 선수 선미가 없는 길이 20m의 투네라는 배인데, 9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두번째 배는 1880년 오슬로 부근의 언덕 모양으로 생긴 옛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9세기 바이킹들은 바다와 접한 곳에 산을 쌓아 그 속에 배를 묻고 말이나 개를 순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체 배 길이는 21.58m, 폭이 5.4m이며, 배의 한가운데 있는 묘에서 남성 인골이 발견되었다. 그밖에 피혁제품, 낚시바늘, 청동제 마구 등이 출토되었다. 이는 추풍(追風) 전용인 4각 돛으로 32명의 조타수가 탑승해 1일 150마일(1항해마일=1,852m)을 항진할 수 있는 원양 항해용 선박이다.
- 세번째 배는 1903년 오슬로 하구에서 좀 올라간 곳에 있는 둘레 150m의 해저 분구에서 발견되었다. 이 3척의 선박을 통해 바이킹들이 달성한 조선술과 항해술 및 해양문화를 알 수 있다.

<전 학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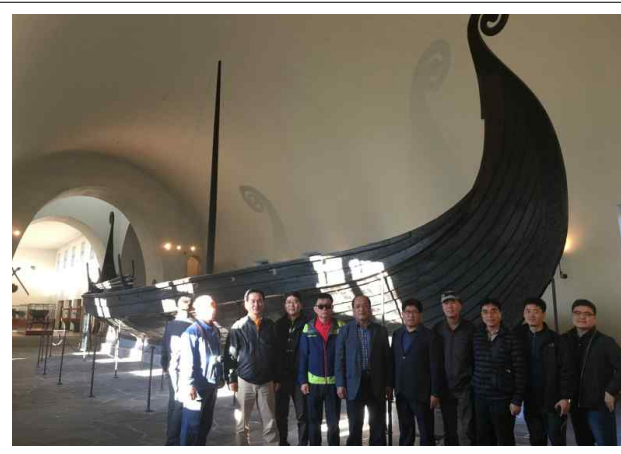
바이킹박물관 전시물



바이킹박물관 전시물



바이킹박물관 전시물



바이킹박물관



바이킹박물관 전경



바이킹박물관

<느 낀 점>

- 노르웨이라고 하면 바이킹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800년대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숲에 사는 유쾌한 민족으로 춤과 노래를 즐기고 장수하는 민족”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 바이킹들은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유럽 전역에 걸쳐 약탈과 영토 확장을 하였으며, 대대적인 원정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교역로를 확보하면서, 활발한 교역활동을 전개해 아랍 및 그리스 상인들과도 교역을 하였다고 한다.
- 이렇게 찬란했던 바이킹 시대를 생각하며 그 당시 사용되었던 선박들을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다. 이런 점을 통해 현재 노르웨이의 조선, 항해에 기술의 면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해양 강국임을 자부하고 있지만, 옛 선조들이 사용하였던 선박에 대한 조사, 유물발굴, 그리고 보존에 대한 의식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최근 조선사업이 많이 어려워져서 국가에 큰 타격이 되고 있지만, 분명 우리 조선도 얼마전만해도 강점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지켜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나. 브리젠 역사지구

<주요 현황>

- 브리젠 지역은 노르웨이 베르겐의 구항구에서 밝게 칠해진 목조건물 수십 채가 바다를 향해 일렬로 늘어선 지역이다. 날카롭게 솟은 박공 지붕을 한 똑같은 외양에 색깔만 다른 중세풍의 건물들이 있는 이곳이 197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브리젠(Bryggen, 노르웨이어로 항구를 의미한다) 지역이다.
- 브리젠은 중세 한자동맹(Hanseatic League) 소속 상인들이 거주하면서 무역활동을 하던 한자동맹의 북해지역 사무소였다. 이곳에 처음 사무소가 생긴 것은 1360년이며 이를 계기로 이후 400년 동안 지역의 해상무역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다.
- 해안에 늘어선 특이한 목조건물들은 항구로 들어오는 무역상품들을 저장하는 창고이자 한자동맹을 주도했던 독일 상인과 점원들의 숙소 겸 사무실이 결합된 다용도 공간이다.
브리젠이 한자동맹의 북해지역 거점으로 명성을 날리던 14~16세기에는 독일인을 위시한 많은 상인과 점원들로 활기가 넘쳤던 곳이다. 물론 창고에는 대표적인 취급 물품이었던 노르웨이 건어물과 곡물이 가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고 현대적인 의미의 무역이 발전하면서 중세적인 무역을 대표했던 브리젠은 무역항으로는 의미를 상실했다. 다만 당시의 건물들 중 일부가 남아 해상무역 중심지로서의 영화와 생활상을 짐작하게 할 뿐이다.

- 현재 남아 있는 브리겐의 과거 무역사무소 건물들은 전성기의 4분의 1정도 규모다. 이 건물들이 한자동맹이 한창이던 14~16세기에 지어진 것은 아니다.

브리겐의 건물들은 주로 목조로 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했으며, 건설된 이래 총 여섯 차례의 대화재를 겪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대화재가 일어났던 1702년에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버려 현재 건물들은 대부분 그 뒤에 건설된 것이다. 그러나 브리겐의 건물들은 화재가 일어난 뒤에도 항상 과거 모습 그대로 다시 지어졌기 때문에, 외관은 물론 내부구조도 한자동맹 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남은 건물들은 대부분 상점이나 레스토랑, 미술가의 작업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 내부에는 한자동맹 당시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자 박물관도 있다.

목조건물들이 있는 중세 거리 근처에는 유명한 베르겐의 어시장과 12세기에 건축된 성마리아 교회(St. Mary's Church)가 있다. 성마리아 교회는 베르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로마네스크 양식 교회 건물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 이 지역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옛날 찬란했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건축물들로 주변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당시 활동했던 상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다.

<전 학 사 진>



브리젠 목조건물 전경



브리젠 목조건물 뒤편 전경



브리젠 목조건물사이 통로



브리젠 목조건물사이 외관



브리젠 목조건물 앞 기념사진



브리젠 목조건물 앞 기념사진

〈느 낀 점〉

- 브리젠거리는 197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브리젠은 항구라는 의미의 노르웨이어다. 이곳은 옛날 해상무역의 중심지로서 큰 번영을 누렸던 곳이라고 한다.
- 해안에 늘어선 목조건물들은 무역상품들을 저장하는 창고와 숙소 등으로 이용되기도 했던 복합용도 건물로서 많은 상인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느껴졌다.
-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은 쓸쓸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또한 이 건물들은 목조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해서 화재를 많이 겪었다고 한다. 남은 건물들은 상점이나, 작업실, 레스토랑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보수공사가 진행중인 건물들도 있었다.
- 우리 도의 백제역사지구가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내년이면 대산항을 통해서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해짐으로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 지역의 고건축물들은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고건축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더욱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 바사호박물관

<주요 현황>

- 바사호 박물관은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17세기 선박인 <바사>호가 전시된 곳이다. 원형의 95% 이상이 보존됐고,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조각상도 많아 스웨덴의 관광명소로 꼽힌다.
바사호는 구스타브 2세(GustavII)가 재위하던 1625년에 건조된 호화 전함이다. 총길이 69m, 최대 폭 11.7m, 높이 52.2m, 배수량 1210t, 적재 대포 64문, 탑승 가능인원은 450명이었다.
- 바사호는 1628년 8월 10일 스웨덴의 해군력을 과시하기 위해 스톡홀름 항에서 폴란드로 첫 항해에 나섰지만 침몰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은 대포와 포탄을 배에 싣는 바람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돌풍에 가라앉고만 것이다. 1956년 해양 고고학자인 안데스 프란첸(AndersFranzen)에 의해 발견된 바사호는 침몰 이후 333년 만인 1961년에 인양됐다. 전함에서는 1만 4000개 이상의 목조품과 700여 개의 조각상, 선원들의 유골과 유품들이 함께 발견됐다.
- 바사호는 1962년 임시 박물관으로 옮겨진 뒤 1988년 새로운 박물관으로 이전해 1990년 바사 박물관으로 개관했다. 7층으로 구성된 바사 박물관은 바사호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바사호 발견 당시 해저탐색에 사용된 잠수복, 배 안에서 발견된 보석상자 등도 전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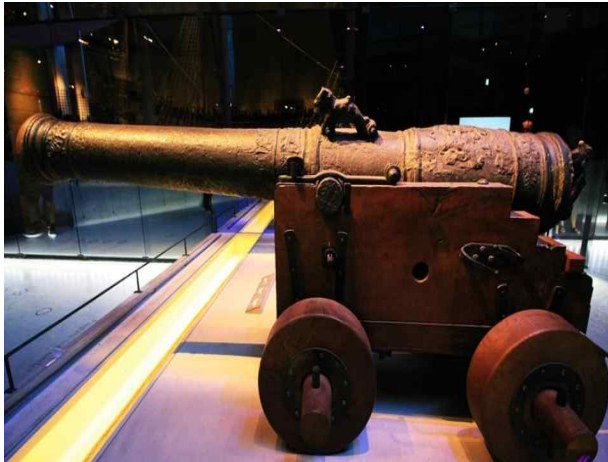
<견학사진>



바사호 앞 기념사진



전시된 바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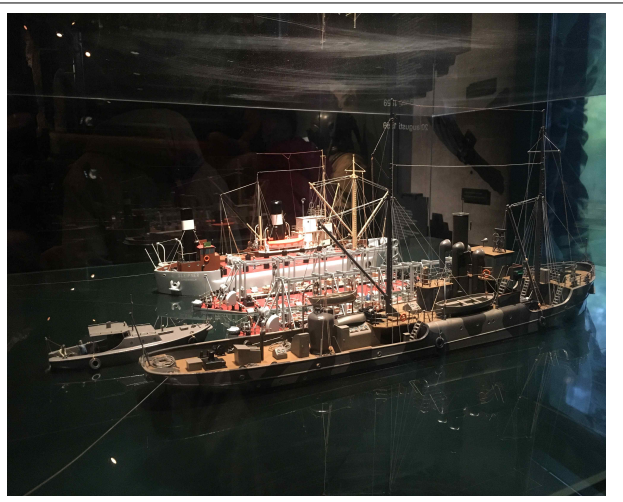
바사호에 실은 대포



바사호 인양때 사용된 잠수복



바사호를 바라보며



바사호 인양 모형도

<느 낀 점>

- 바사호 박물관에 들어서서는 순간 뭘지모를 웅장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바사호 박물관은 세계 유일의 17세기 선박 <바사>호가 전시된 곳으로 더욱 놀란 것은 원형의 95%이상이 보존되었다는 것이다.
- 바사호는 만들어지고 나서 안타깝게도 첫 항해에서 침몰하였다고 한다. 침몰 원인으로 대포와 포탄을 많이 실어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1600년대 발생한 선박 사고 원인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전에 발생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 암튼 바사호 안에는 여러 가지 유물과 유품들도 많이 발견이 되었으며, 바사호를 원형으로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주는 못이 썩어 교체를 하려고 하면 나무가 부서지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 얼마 전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현재 인양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준비와 검토로 인양 작업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이런 아픈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존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요현황>

-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2의 도시다.

제정 러시아 때는 페테르스부르크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1914년 페트로그라드(Petrograd)로 개칭되었다가, 1924년 레닌이 죽자 그를 기념하여 레닌그라드라 불렀다. 그 후 1980년대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1991년 옛이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되찾았으며, 페테르부르크로 약칭하기도 한다. 네바강 하구의 101개의 섬과 함께 강 양안에 계획적으로 건설되었다. 말라야 네바강·볼샤야 네바강을 비롯한 수십 개의 분류에 놓인 500여 개의 다리로 연결된 정연한 거리는 ‘북방의 수도’로 불려왔다. 북위 60°의 고위도 지역이면서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보여, 남쪽의 모스크바보다 기온이 높다. 1월 평균기온 -7.6℃, 7월 평균기온 18.4℃이며 6~7월에는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 1703년 표트르 1세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스웨덴으로부터 탈환하였다. 그 뒤 러시아 절대왕정의 새로운 수도, 즉 ‘유럽으로 열린 창’을 건설하기로 하고,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를 세운 것이 이 도시의 기원이다. 이어 1712년 수도가 모스크바에서 이전해 오면서, 장대한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이 진행되었다. 이후부터 ‘유럽으로 열린 창’이라는 말 그대로 서구문화를 받아들이는 창구가 되었다. 18세기 후반에는 러시아 최대의 무역항으로서 무기·금속·조선·섬유 등 공업의 중심지가 되어, 1851년에는 모스크바와의 사이에 러시아 최초의 철도가 부설되었다.

- 자본주의의 발전과 철도망의 정비 등에 힘입어 인구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18세기 말에 22만이었던 인구가 1880년에는 84만, 1910년에는 190만, 1917년에는 230만으로 비약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심장’ 이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머리’ 라고 일컬어진 그대로 러시아 서구주의 운동의 선두에 있었다. 따라서 학술·문학·음악·연극·발레 등에서도 자국 내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 한편, 정치면에서도 1825년 데카브리스트의 난 이래 절대왕정에 대한 혁명운동의 온상이 되었다. 또 20세기에 들어서서는 노동운동 및 공산혁명운동의 무대가 되었다. 1905년 ‘피의 일요일’ 사건으로 시작되는 러시아 제1혁명과, 1917년의 3월혁명·11월혁명이 결행됨으로써,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혁명이 성공을 거두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8월부터 29개월 동안 독일군의 포위 속에서 40만 명이 아사하면서도 시를 지켜냈다. 이로써 ‘영웅도시’ 라는 칭호를받았다. 전후 피해를 복구한 후에는 1959년 시 창설 20년 기념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모스크바에 다음 가는 공업·문화·학술의 도시로 서구적 색채가 짙다. 현재는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견학사진>



겨울궁전 앞 광장



국립에르미카주박물관



페트로파블롭스키요새



페트로파블롭스키요새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 야경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 야경

<느 낀 점>

-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열차를 타고 저녁에 도착을 해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올 때 도시야경은 정말 멋있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 도시가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그 조화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껴졌다.
-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러시아의 제2의 도시이며, 네바강 하구의 101개의 섬과 함께 강안에 계획적으로 건설되었다. 1703년 포트르 1세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스웨덴으로부터 탈환하였고, 그뒤 1712년 수도가 모스크바로 되면서 장대한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 그 이후로 이런 도시계획의 힘에 의해 서구문화를 받아들이는 창구가 되었으며, 무기,금속,섬유 등 공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러시아의 서구주의 문화의 대표라는 생각이 들었다.
-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모스크바 다음으로 공업, 문화, 학술의 도시로 현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 하나의 도시를 계획하는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개발, 더불어 문화유산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다. 과거와 현재가 잘 융합되어서 한 도시를 표현함으로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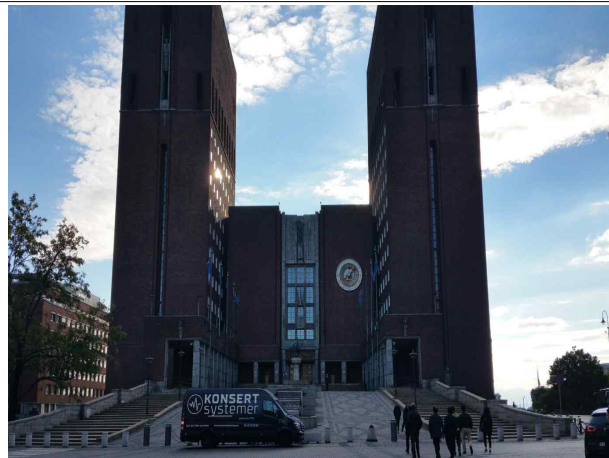
바. 그 밖의 참고정보



암스텔담 대중교통 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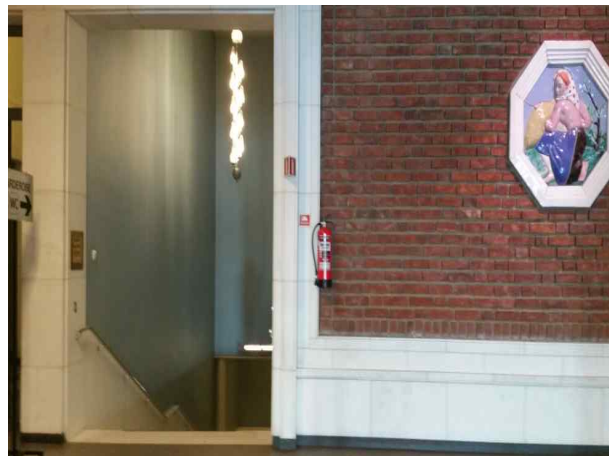
암스텔담 도로 전경



오슬로 시청사



오슬로 시청사 의회



오슬로 시청사 소화기 설치



노르웨이 수력발전소 관로 설치



마리나 요트 선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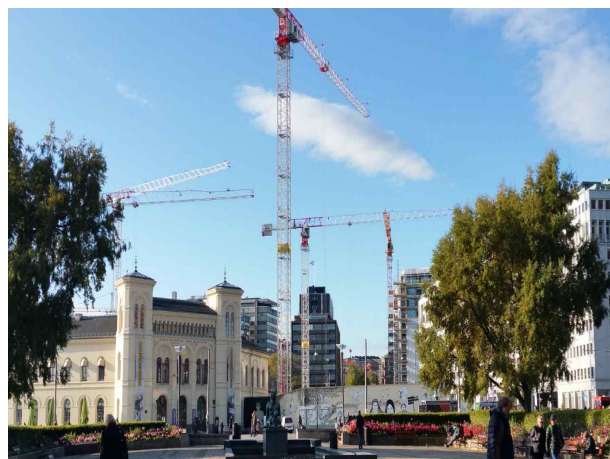
공사현장 안전시설물 설치



노르웨이 전통 주택 양식



베르겐 항구 전경



건물 공사현장 전경



레르달 터널 내부모습



플롬 ~ 뤼르달 구간 열차



눈이 쌓였을 때 도로 표시 막대



바사호 인양때 사용된 다이빙벨



바사호 인양 모형도



스카니아 본사 전경



스톡홀름 도시내 쓰레기처리 모습



유람선 실자라인(스톡홀름-헬싱키)



어린이 안전보호복 착용모습



헬싱키에 있는 암석성당



이동열차(헬싱키→상트페테부르크)



건축물 보수 현장



상트페테부르크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IV 연수를 마치고

네덜란드, 북유럽(3개국), 러시아국외 연수를 마치며...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맹 정 호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은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보다 그 깊이가 더 필요한 것은 도민들의 재산권과 생명이 직결되는 재난예방시스템,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항만개발, 소방시설, 소방안전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도민의 욕구에 기여하고 도행정의 올바른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번에 선진 외국의 새로운 지식습득과 전문을 넓히기 위하여 비교적 항만개발 및 도시계획의 선진지역인 유럽(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지역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하게 되었다.

유럽지역의 연수활동은 소방시설 운영 및 예방체계, 건축물 소방예방 도입사례, 도시개발사례, 도시재개발사례, 항만시설 운영사례, 건축물 보존의 문화유산의 보전사례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살펴보았는데 뻘뻘한 연수기간에도 불구하고 깊은 열정으로 연수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처음 접한 네덜란드의 느낌은 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대부분을 매립하여 사용하고 있고, 물이 많은 곳으로 물과 함께 성장해온 나라였다.

네덜란드는 철저하게 도시계획을 세워서 바다를 매립하여 도시를 형성하였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느낌은 깨끗하다! 였다.

주말이라 그런지 한산하고 여유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가족들과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주말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네덜란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노르웨이로 향했다. 노르웨이는 운하가 발달해 있으며,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아름다운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노르웨이에서는 소트라 소방서와, **FIRESAFE**라는 소방시설 종합 컨설턴트를 담당하는 기관을 방문하였다. 여기서 느낄수 있었던 점은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마음은 어느 곳이든 똑같다라는 점과,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될려고 하고 있으며, 세심한 부분까지도 검토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본받아야 하는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대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해양의 후세다운 바이킹으로 이미 황금기 시대를 이끌었던 나라였으며, 현재도 높은 **GDP**, 여유로워보이는 생활들을 볼 수 있었다. 노르웨이는 빙하가 빔어낸 대자연의 보고인 경이로운 절경인 피요르드가 있으며, 흐린날씨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우울함 보다는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된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문화, 예술을 꽃피우고 조선, 철강, 기계산업들의 발달로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고 하니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다음의 여정은 스웨덴이었다. 스웨덴에서는 쇠데르텔리에 시청을 방문하였는데, 쇠데르텔리에에는 공업도시로 스웨덴에서 20번째로 큰 도시라고 했다. 도시의 기본계획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도시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주거지 조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았고, 주변 환경과의 융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더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바사호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사호박물관을 들어섰을 때 느껴졌던 웅장함, 그리고 경건함, 이런 느낌들은 나만 느낀게 아닐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웠다.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점들, 그리고 선박의 인양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부분, 2년전 우리 나라의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 등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세월호가 인양되어 우리에게 항상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보존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짧은 스웨덴 일정을 뒤로하고 스톡홀름과 헬싱키를 운항하는 실자라인이라는 여객선에 승선했다. 여객선 내부에는 면세점, 수영장, 온천, 카지노 등 모든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으며, 공연 등을 즐기면서 갈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여객선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운항을 한다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을 하자마자 PORT OF HELSINKI 기관을 방문했다

헬싱키는 핀란드 최대의 수입항이며, 또한 수출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실자라인같은 초대형 유람선이 드나들면서 이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 얼마나 중요할지에 대해서도 공감이었다. 모의훈련을 실시할 때 승객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이런 훈련이 실제 필요한 훈련이구나! 우리나라에서도 꼭 실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헬싱키를 뒤로하고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로 이동하였다. 이동수단을 열차를 탔는데, 러시아가 국경을 지날 때는 뭔가 경직되어있고 어둡다는 느낌이 들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아름답다! 라는 것이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옛스러운 도시라 부르며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도시이며, 유럽과 인접해있어, 스웨덴 지배시절에 건축된 유럽식 건축양식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조경, 주변경관 조성, 옛 멋을 나태내기 위한 거리의 악사 배치 등 최대한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있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발전하였다. 우리 도에서도 백제문화유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핵심적인 지역의 도시계획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 및 관광프로그램을 차근차근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장에서 선진지역의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공공디자인, 도시내 오픈스페이스 확보, 소방시설 및 운영, 문화유산의 보존 등에 대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낀점은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보다 표현 할 수 없이 많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체득한 것이 보다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의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도민들의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을 도정과 밀접하게 접목시키고 발전시켜 글로벌 시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연수기간 동안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정광섭 의원님, 조치연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 홍성현 의원님, 의회사무처 김보영 수석전문의원, 이면우 전문위원, 최호준 주무관, 집행부의 안상만 팀장, 김준운 주무관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연수소감을 마칩니다.